

第3回 女流隨筆懸賞募集 當選作

☆……韓國火災保險協會는 78年度 第3回 女性 불조심 隨筆 및 保險加入 成……☆
 ☆……功事例(手記)를 懸賞募集했다. 지난 5月 9일부터 6月 9일까지 1개월……☆
 ☆……간 현상모집한 이번 隨筆募集에는 總 200餘編이 應募하였는데 作家……☆
 ☆……孫素熙氏가 엄선하여 優秀作 1편, 佳作 2편을 選定했다. 또한 當選……☆
 ☆……作은 아니지만 현상응모작중 讀者들에게 敎訓이 될 수 있는 좋은글……☆
 ☆……2편을 함께 掲載한다. (編輯者 註)……☆

全國主婦隨筆最優秀作



조심조심만이 불조심의 길

김 정 자

<경북 금릉군 지례면 지례중학교>

국민학교 2.3학년때 불조심 포스터를 그려서 곧잘 부엌에 부쳐 두었다.

적황색의 불길의 건물 창밖으로 뿜어내는 불꽃을 내밀고 여기저기 해골바가지가 덩굴고 반쯤 탄 성냥개비…….

지금부터 25.26년전이니깐 연탄은 구경하기도 어려웠고 빨감들은 장작 솔갑 삭정이로 하던 때다. 한 아궁이 잔뜩 디밀어 놓은 솔갑은 금방 타 버려서 불을 때면서 잠시도 먼 눈을 팔수없다.

부엌 바닥으로 나온 불이 나무더미에 붙을 것 같아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니다. 오늘같이 30°에 육박하는 더위에는 불이란 탈단 들어도 후근해지지만 인류가 발견한것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발견이 불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자연이, 자원이 모두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지만 불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기로 하자.

공기가 없을 때처럼 숨쉬는데 곤란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당

장 우리의 식생활이 원시 상태의 생식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생식을 함으로써 좋은 점도 있을지 모른다. 허지만 우리가 생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음식물의 맛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음식이 비로소 조리를 함으로써 맛을 내는 것이 아닌가. 불고기, 따끈한 한산의 우유, 고슬고슬 알맞게 퍼진 밥 따끈한 승냥, 거기에서 따끈한 방바닥의 은근한 감촉, 육탕에서 만끽할 수 있는 기본도 맛볼 수 없을 것이다.

불없는 세상, 상상만 해도 살맛이 있겠는가.

얼마전 여의도 아파트에서 난 불은 충분히 구출될 수 있었는데도 어린 두 딸을 저승으로 보낸 아픈 이야기로 세상의 모든 엄마의 가슴을 찢트르하게 하는 경종과 교훈을 남겨 주었다.

“쫄쫄 제 집에 난 불을 제가 처티한 생각은 없고 이웃 사람만 부르러 다니다가 어린것들을 태워 죽여, 정신 나간 여편내 같으니라구. 애들 먼저 깨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먼저 할 일인데……” 언뜻 사람들의 핀잔 소리를 들어도 광광한 열다라는 안따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어느건 불난 집이 라고. 불길은 치솟고 아마 그 불길이 사람의 머리를 마비시키는가 보나. 오죽하면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을 말하는 “부라부라”라는 말이 “불이야, 불이야”에서 나왔는지 않는다. 냉정한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을 먼저 안전한 곳에 피신시키고 한두가지라도 귀중품을 건져내는 것이 현명한 노릇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 침착하던 사람도 불이 나면 당황하여 냉정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한다.

꼭 10년전의 일이다. 그렇게 저성스레 불조심 포스터를 그려 부친 덕분인지 우리집에서는 불난번 난 일 없이 불난 집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찌 꿈이나 꾸었으랴. 내가 시골학교의 교사로 자취생활을 하고 있을때이다. 마침 라디오를 보니 불이 난 뉴스를 전해 준다. “원”다방과 “협동 이발관”이란 말이 나오자 나는 그만 아찔했다. 우리집은 바로 “원”다방 아랫층이자

“협동 이발관”과 벽을 사이에 둔 가게였기 때문이다. 밤낮 가리지 않고 역전에서 잠도 설친 장사 끝에 겨우 기반이 잡히고 가게도 잘되어 간다고 기뻐 하시던 일터 열음이 퍼올랐다. 김천에 나가니까 벌써 걸리시 보아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그 위로 벽이 시꺼멓게 허물어져 있었다. 엄마는 얼빠진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빛으로 넋을 잃고 계셨고 친구들은 엄마를 위로하느라 음식을 권하면서 다음을 크게 가지라고 말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빼앗아 갈 수도 있다. 한 편에는 불에 그을린 냇가지 물건만이 덩굴고 어머니는 “어찌나, 어찌나”하면서 발단 구르다 뒤증뚱도 꺼내지 못했다고 하신다.

火因은 다방이다, 이발관이다 하면서 불난 곳과 火因을 가리지 못했지만 이발관에서 發火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발관에서 난로 옆에 수건을 늘어 놓은 것에 불이 붙어 벽을 타고 올라 이층으로 치솟았다고 한다. 그것이 새벽이었다니 연탄을 깔고 불문을 닫지 않은 채 이발소를 비웠으니 난로 파열로 일어난 불이었나 보다. 貰들어 다방을 경영하던 主人은 복귀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니 형편없이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다. 우리 가게도 다시 짓기 까지 여러 달을 노변에서 고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겨울에 접어들었는데 엄마, 아빠의 고생은 극심했다.

일본에서 철공소를 경영하실 때 그 실한 지진이 일어나도 용접하던 산소통을 잠그시고 집안의 전기시설을 안전하게 한 뒤에야 피하셨던 꼼꼼하고 침착하신 아버지께서 이

웃 때문에 어쩔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었다. 적십자사에서는 쌀과, 보리, 숯, 양은그릇 몇개 맞지도 않은 옷, 누비 이불을 보내 주어 지금까지 용도도 모르고 내왔던 적십자회비의 쓰임을 알고 고맙게 생각되었다. 우리도 세들어 있던 그 가게가 화재보험에 加入이 되어 있었다라던 주인은 송두리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 할것없이 불행을 맞보고서야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을…….

다른 재난과 달라 불이란 우리가 평소 세심한 주의만 한다면 막을 수 있는 지극히 작은 부주의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한다. 평범한 내용의 불조심 표어를 다시 한번 뇌어 본다. 「끼진 불도 다시 보자」 「불내고 울지 말고 불조심하자」

건조했던 올 봄은 어느때 보다 산불이 많았던 해였다. 지극히 작은 불씨, 무심히 던진 성냥개비에 불이 붙어 막대한 나라의 재산을 재로 만드는 실수를 범해서는 국민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천 정보의 수만그루 나무가 등산객이 순간적인 부주의로 사라졌다는 라디오 放送을 들으며 그동안 산림녹화를 위해 애쓴 결과가 너무도 허무하여 발을 구른다.

점심 식사후 두 선생님께서 주고 받으시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다.

“아태리 포프라를 15년 정도만 키우면 내 퇴직금보다 많은 수입이 나온대네”

“자네 그럼 제법 부잘새”

“나라에서는 나무에 거름까지 하라고 3년동안 계속 비료를 두상으로 배급하고 있지. 이번 일요일에

는 포푸라나무에 기름을 넣어야지” 나무의 기름이란 것을 보여주는 데 꼭 아귀죽만한 조개갈기도 하고 조약돌 갈기도 한 둥근모양으로 딱딱한데 그 한알에 여러가지 성분이 골고루 들어 있다고 한다 10년생이면 3만원가량 받을 수 있는 모양이다. 나라에서는 이토록 治山에 힘쓰고 있는데 지난 초파일 날도 절에 온 사람들이 던진 불에 수천정보의 나무가 탔다고 하지 않던가 더러 외화를 보노라면 밀림지대에서 저절로 山火가 나서 무섭게 타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산의 나무경도로는 자연산화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해마다 그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낸 것은 문화국민이나 자처하는 우리 국민으로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또 어니에선가는 산불을 끄다가 학생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누군가 무책임하게 버린 조그만 불씨 때문에 잘못 없는 착한 학생이 진화도

중에 희생되었다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옛날에는 머느리가 불씨를 잘 간수하지 못하면 살림 못하는 머느리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부실피로 불을 만들던 옛날, 허지단 오늘날의 불씨는 모든 씨앗중에 가장 흔한 씨가 아닐까.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빠지지 않는 상가, 백화점, 호텔의 불들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치러야하는 행사로서만 맞아야하는가.

공산군의 도발도 무섭고, 전염병 만연도, 한재도, 폭우도 모두 무섭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진연 예기할 수 없고 조심해서도 되는 일이 아닌 천재지변이다. 이에 비해 불이란 조그만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가져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한사람, 한사람이 철두철미하게 불조심을 生活化해야겠다. 가정의 전기 배선은 누전의 위험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살피고 가족에게

도 화재 위험의 실례를 들어 건대 로 주의 계동을 시켜야 될 것이다. 아직도 불이 켜있는 난로에 기름을 붓다 기름에 불이 붙는 사실을 보면 도무지 주의에 게으르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재산만이 아니라 나라의 막대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 각자가 불조심을 하는 것도 애국하는 길이라고 본다 현대의 문명과 정비례해서 따르는 불의 사용이 넓어짐에 따라 생기는 불의 위험을 알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자.

어디선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온다. 무시무시한 불이 없다면 저 고향과 같은 은근한 향기를 맞볼 수 있으랴. 불의 고마움과 무서움을 느끼면서 실수 없이 생활해야 하겠다.

